

# 제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답보'

### 환경부, 2016년 금악리 선정... 2018년 준공 계획 부지 확보 못해 지지부진... 최근 계획 일부 변경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16년 12월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사업 대상지로 금악리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후 2017년 공사에 착공해 2018년 12월 준공키로 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사업은 사업비 52억원(국비 26억·지방비 26

억)을 투자해 제주도 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시설용량 230t/일)을 설치하고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로 전기를 생산할뿐 아니라 폐열을 활용, 열대작물 체험형 농장과 저온저장고 등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또 마을내 노후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제로하우스, 포크빌리지(금악리 돈육

가공판매장), 밴드 생태습지, 금오름과 연계해 6차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부지를 확보 못해 각종 사업 추진이 지연됐고 최근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다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 됐다. 하지만 지난해 자부담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됐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현재 설치 승인절차를 밟고 있고 당초 사업 계획 가운데 열대작물 재배 온실은 곤충사육장으로

변경됐다"며 "현재 환경부와 구두로 협의했고 앞으로 마을에 남아있는 소소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조만간 사업계획서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박근혜 정부 핵심 개혁과제로, 소각장 가축분뇨처리장과 같은 혐오·기피시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소득을 창출함으로써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이다. 강원도 홍천군 소매곡리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국내 1호이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20일 금요일 음 8월 22일 (14물)

### 기상정보



| 오전  | 강수 확률 | 오후  |
|-----|-------|-----|
| 20% | 제주    | 30% |
| 20% | 성산    | 30% |
| 0%  | 고산    | 30% |
| 20% | 서귀포   | 30% |

### 주간예보

| 내일 | 호리고 비 | 20/23°C |
|----|-------|---------|
| 모레 | 호리고 비 | 22/24°C |

### 흐림

제주도는 낮부터 차차 흐려지고 밤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기온은 19-20°C, 낮 최고 기온은 25-26°C로 예상된다. 제주 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             |           |
|-------------|-----------|
| 해돋이 06:20   | 달뜨기 22:15 |
| 해질미 18:34   | 달지기 11:33 |
| 물때 만조 01:24 | 간조 08:18  |
| 14:22       | 20:57     |

### 생활·안전 기상정보

|          |          |
|----------|----------|
| 식중독지수 경고 | 자외선지수 높음 |
|----------|----------|

## 도교육청, 2019 제주수학축전 개최

### 21~22일 4·3공원 등서

제주도교육청은 21~2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인근 지역, 제주4·3평화공원에서 '하간다가 문밖 수학이 우다(모든 곳에 수학이 있어요)'를 주제로 '2019 제주수학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축전은 ▷수학의 원리를 직접 체험해보는 수학체험전 ▷수학이

있는 구조물과 UCC를 창작하는 수학경진대회 ▷자연과 일상 속에 숨어있는 수학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매쓰투어(Math Tour) ▷매쓰이벤트(Math Event) ▷수학동아리 발표 ▷수학마술까지 총 6개 영역으로 진행된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회째를 맞아 '제주수학축전 역사' 동영상 상영, 한복 입은 수학자 초상화 전시, 수학마술, 제주 4·3 평

화공원 MathTour 등 행사를 더욱 풍요롭게 구성했다.

제주수학축전은 해마다 타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전국수학축전의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일본·베트남의 교사와 학생들이 참가하며, 도내 초·중·고 수학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이 돼 800여명의 학생 도우미가 101개 부스 체험 및 행사를 운영한다.

표성준기자 sijyo@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 제주관광공사 20~21일 접근 가능 지역관광포럼

제주관광공사는 20~21일 이틀간 제주칼호텔을 포함한 도내 일원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지역관광'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한 세계적 트렌드와 지역 관광의 국내외 선진사

례를 공유한다.

국제포럼에서는 2개의 전문 세션이 열린다.

제1세션에서는 관광지과 관광 상품, 관광 서비스에 물리적 제한과 장애,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지역관광 현장정보와 각국의 지역관광 활성화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알뜰도서관 무료교양시장 찾은 어린이들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알뜰도서관 무료교양시장' 첫날인 19일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 책을 고르고 있다. 이상민기자

## 관광전문가가 밝힌 사드사태 이후 제주관광 걱정거리 "중단체관광객 유인 저가상품 재출현"

관광 전문가들은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시장에서 주로 발생했던 저가 관광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연구원 정승훈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사드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보고서'에서 학계, 공무원, 관광공사·협회 관계자, 관광업계 종사자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향후 5년을 고려할 때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주관광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단체관광시장 저가 관광구조 재발생 가능성'에 가장 높은 4.56점(5점 척도)을 줬다.

또 '중국자본 운영 업체에 중국 관광객 집

중' (4.30점) '대기업 면세점에 쇼핑 집중' (4.26점)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 관광시장 불안정성' (4.26점)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전문가들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교통체계 분야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것으로 '제주-중국 노선 중대형 항공사 취항 확대'를 꼽았으며 교통 안내 체계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 확대'를, 쇼핑 환경 체계에서는 '면세점과 대형쇼핑점에 대한 송객수수료 상한선 설정'을 개선 과제로 각각 들었다.

이밖에 맞춤형 특별 관심 관광상품 개발, 실용 중국어 책자 상권 보급, 중국 관광객 겨냥 제주관광 홍보 슬로건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제주도의회는 이호유원지 카지노 사업 부동의 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23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심사 계획과 관련 "도의회는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목적과 무관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부터 논란이 매우 컸던 사안이고 오랜 시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업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에 제출된 이호유원지 사업은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라며 "사업자가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 계획서에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어 이곳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업 부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 ▷주변 경관독점 및 경관 사유화 ▷연안 환경 보전 대책 전무 ▷제주도 숙박업 과잉공급 등을 이호유원지 사업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호유원지 사업은 30년 전 탐동 매립처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 자리에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전철을 그대로 깔고 있다"며 "제주도정이 이전 사례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호유원지를 통과시켰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이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한사랑 역사광복 전국 순회특강

대한민국인에게  
大韓國人  
고함!

한국인 역사 DNA를 파괴한 일제조선총독부가 심어 놓은 식민사관의 실체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합니다.  
한국의 원형 K-history로  
진정한 흥익인간의 한류문화를 제시합니다.

일시 : 신시개천 5916년 단기 4352년 (2019년) 9월 22일(일) PM 2~5시  
장소 : 제주 김만덕 기념관 강당  
문의 : 010 - 9273 - 2935, 010 - 4821 - 6119

1부 조선총독부가 지워버린 한국사의 실체  
이완영 수석본부장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 협의회 사무총장 (사)대한사랑 수석본부장

2부 K-history K-spirit K-cosmos  
박석재 이사장  
한국전문연구원 3,4대 원장 (사)대한사랑 이사장

[주최] (사)대한사랑 [후원] (사)독립유공자유족회,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 세계화단학회 [협찬] STB상생방송